

어렵도다 하후미쇼부답이러라이러구러일락함지호고월출동영호니송학에청풍이죽  
 념을동호고월광은전상에빅김을편듯물식이즈못소아호티하총지단정이육난을비겼  
 스니맑은광취달이웃고정신니츠힐유에징청함은오히려달석홀자라진빅이나아가집슈  
 월명월이빛나다호나그티로비기미너모닝락호고섬셔호니맑고빛나디즈티절묘호야  
 광취찬난호니이진짓폐월슈회화지티와침어락안지용이라타일그티부인되난스람은무  
 삼복으로저련육인선랑으로썩홀고필련슈유불이호리로다하취심리에불예호나강잉  
 쇼월형이금장슈막속에아릿다온손니되야춘방에깃드려규방을셔나지아닐거시로티  
 아지원앙금리한쇼호고봉황침이닝담호야이러듯야심호되도라감을싱각지아니코무  
 미한벗슬티호야광심이발호난도다나난본티녀석을볼관니너가나나엇지규리에잠  
 기리오진빅이탄왈그티말이을도다니실노빈방찬즈리싱각이업논지라맛참교외에갓  
 다가그티를츠즈오미괴이한용석을티호야신어를드르니며날의사업고또한날이님의  
 저무러성문을다닷슬듯호고혼정이드졌스니엇지도라가리오찰하리이곳에잇셔형의  
 절석영모를티호야한가지로동금침상에괴이한향취를것지어지극한정을다호고저호  
 나니형은필연괴로와호리로다이제피츄독쳐호니두환부셔로위로호면엇지아니쫓츠  
 라취가장슬희나양구후강잉쇼월형은취랑이구지말나이런양쇼월야에용열이잠즈리  
 오맛당이아람다온술를마시고시를하나식지어리빅의사빅편을지음이엇지아람답지  
 아니라진빅이희왈츠언니더욱조호니빨이쥬호를나오라시쥬를결우미가호도다하후

미쇼왈니본티술를못먹난술은님의아난빅어날형이엇지또미양먹기들이다지급박호  
 리오다만시를지으라니형을짜라지으리라언파의쥬술옥치를버리고문방을나와진빅  
 이먼저잔을잡아거후르고후를권호니부득이바다마시고시를지어음푸니진빅의시  
 옥성이가장웅권쇠락호야광활심원호야바다갓튼문장이오리산갓튼지취어날호음이  
 발월호야고쥬의금동을올림갓고하후난시저웅건호고신괴호야귀신의조화오일일이  
 빛출뚝고풍은니화호듯옥슈의난봉이노리호야월하의형은니머물고금죄갓드려견즈  
 로호야금활연니녀슬일허바릴지라진빅이년호야잔을잡으며시를지을시술이반취호  
 미시사더욱호발호나하후를밋지못할지라진빅이잔을더지고붓슬더져왈즈츄아너난  
 과연신인이로다스시스의신이변화호닐오도말고진속호미첼보시로의논치말지니  
 아마귀신의희롱이로도나의의둔지엇지결을의스를호리오하후잠쇼부답호더라글짓기  
 를긋치고엇게를갈와난간을비겨누어조용이말할시진빅이문왈군의제모괴절노등한  
 호녀즈난빅우되지못호리니고향의전명이발셔하니찾스되소식이묘망호고동정이업  
 스니그티쥬의어티잇나노분명탁신가호나니그티의신괴함을써숙녀를갈희미무어시  
 어러오리오만는동시빅우의뜻지업스니엇지고허치아나리오만다시무삼소회잇난가  
 만일그갓튼쌍을엇고즈홀진딘그적슈인간에난업스리니일성이홀노늘글가호노라모  
 로미늘를외티치말고즈셔이일너의심을히셔케호라하후미미쇼왈니고향을한번셔나  
 디구천리밧게누다시늘를츠져소식을전호리오다만수약호녀즈삼상이진케되엇스니

맛당이 기다려도라갈지라니 이제 부귀함을 따금의 환향하야 전명을 날르고 인하야 성취  
 할거사르되 다만 중심의 정한 뜻이 있어 불구에 전장을 당할 듯하니 다만 지하야 더 공을  
 일우고 인하야 성취하려 노라 진벽이 소월형은 군조라 그러하거니와 나 혼숙녀를 만나지  
 못하면 평성 유한니 되리도다 하더라 각설 관서로 좃츠 변희 눈이 듯하니 서촉서이 왕이  
 서유왕달조로 더 부러 동심하야 삼십만 군을 거나려 좃츠나와 하쥬와 괴쥬를 함몰하 고 승  
 승장구하야 관서지경이 조석에 있다 하니 묘야 황황하 고던 지크게 근심하스이에 묘셔를  
 나리와 정히 파적 할 일들의 논하실적 만묘무하야 더 두하리 업더니 잇셔 하적 육이 반렬  
 에 있다 가이에 출반쥬왕신나 비록나 허어리고 지도 업스오나 국은을 만분지 일이나 갑스  
 읍고 조하 읍나니 원컨디 일지 병을 빌이시면 가히 도적을 멸하야 성상의 근심을 덜이이  
 다상이 탄하스 왈답이 이제 박덕하야 병화이러나 이디경에 밋쳐나 엇지 국가에 불행이아  
 니리오엿그 제동방을 갖 평정하 고 군정이 피뢰함을 면치 못하얏거늘 또 서적이 이렇듯 강  
 성하야 침범하니 서촉산던니 험악하 고 또한 도리요원하니 경이 년소유약함으로 써 두번  
 전장을 당하야 몸이 엇지 보 전함을 바라리오 하시고 가 장쥬져하시니 병뵈돈쥬왕성  
 교맛당하시나 신나 한번 출전하와 우흐로 조직을 안보하옵고 아리로 창칭에 도탄을 구코  
 조하 읍나니 엇지 감히 군간을 만리 밤게 거나리고나 아와 헛되게 하오리 잇고 복원성상은  
 관심하심을 늘희스 일호 근심치 마르심을 바라나이다 언수 파에 괴위씩하야 승적 할거  
 상이면 모에 닳타나니 상이 디 열하스 혼연돈유왕아지 못게라 경의 도락은 진실로 왕룡이

오무왕의 티공이로다 하시고 인하야 련하 병마 더 도독 디 원수를 봉하시 고 정병 삼십만과  
 명장 천여원을 쥬스 제로 군마를 남의로 초용하라 하시니 하원수스은 숙비하 고 이에 물너  
 나니 동쪽 후진세벽이 출반쥬왕신나 또 한출군하야 지이다 상이가 장 불 열하스 같오스디  
 경의 위무는 맛당이 더 장이 되염쥬하나 이제 공쥬의 가례 남박하야 엇지 변방에 나가려하  
 나뇨이느 되지 못할 일이라 더욱 만리 험디에 보니 고 엇지 일신들 마음은 노흐리 오하시 고  
 맛참니 헛치아나시니 진벽이 정석고 돈수쥬왕 국가 위란이 조석에 잇거늘 츠시를 당하와  
 엇지 한공쥬를 위하야 구이하리 잇고 신나 비록 죄업스오나 이제 출전하와 하적 육으로  
 더 부러 동심합력하와 한 모호로 당하오리니 원패하는 물우성녀하 소셔상이 마지 못하스  
 부원수를하시니 하진냥 원수의 일에 장디에 올라나 군스를 점고하 고 무장을 썩각스 소임  
 을 맛길서리 부시랑도 의현니 문득 국정군관에 썩히여 좃츠가니 진벽왕의 현은 문임단서  
 라 병가에는 가차아 일가하노라 회왕니 잠간 보니 의현니 지혜 명달하 고 가 장영오한지라  
 군중에 거게 리하리라 하 고 죽일에 더 군을 거나려 출스하니 상이 문무를 거나려 남교에나  
 와 전별하실서 친히 잔을 쥬시고 님 엇든 옷슬 버셔 남히시고 당부하스 몸을 조심하라 하시  
 고 룡안니 처년하스 제삼권하시니 냥원쥬련은 을 좃츠하온 디 상이 또 상방인감을 주시고  
 철도 열읍에 성스를 남의로 하라 하시니 이인니 비스이 퇴하미 제신니 각각 잔을 나려 전송  
 하더라 일성포향에 더 디 인마를 행할서 정고 폐일하 고 검극이 삼렬하며 비모 화일과 금화  
 쌍기며 붉은 양산니 좌우의 버렸스니 삼군은 용을 자랑하 고 장수는 신위를 분발하니 하원

수머리에 통련즈금관으로 면류를 드리고 몸의 황금쇠즈갑에 쌍동수전포를 새입고 섬섬  
 계료의 순금복뒤를 써엿스니 피금이 성장하며 옥수의 상방금을 쥐고 적거를 닦스니 괴상  
 이 단아하야 강산정기를 거두어 난봉자질에 봉미옥안이 오호치주순니 새석에 바히고 이  
 향이 군중에 쓰이니 엿지디 장의들이 잇스리 오표표이 우화가 선갓하니 상과릭요멀이 바  
 라보고 칭찬불이 높고 그 군중이 고요하며 디외 정제하야 구름이 연흐듯디 군니 물결흐르  
 듯하야 조금도 차착이 업는지라 상이 시로이 탄복하시고 환궁하시니 라츠설병부디스마  
 디도 독하지옥과 부원수진제릭이 디송황데치지를 밧즈와 동십월갑즈일에 정병삼십만  
 을 거나려 축적을 도평홀시디 군니 호호탕탕이셔 호로향하니 소과에 계견니 놀나지아니  
 하고 렬음이 단스호장으로 이영왕스라 서촉에 니르미산련이 힘준하야 삼군니 정이  
 핑치못하느니라 원수서촉디도를 내여 길들아라 위수에 이르미디양창파릭을 띄여 남월  
 망간을 당하야 빅설이 만산하고 빅월이 강상에 가득하야 일석이 되엿스니 창파는 거울갓  
 고 산은 옥갓든디 선창에 안즈가스를 지어 을푸니 기가에 왈

눈의 흰빛출보미도 각달이 벽련에 걸엿스니 만국에 밝은미여 북두가 빛나도 다 북풍이  
 쳐량하니 이 무여 지는도 다 하늘은 북녘구름에 붓쳐가고 척신은 횡도에 류락하는도 다  
 한변황희수를 건너 비린뜻글를 써서 성주의 은혜를 갑습고 평성소원을 알우리라 하얏  
 더라

읍길을 맞치미 주루수향하야 금포를 적시니 진빅이 문왕장부용복을 몸에 착하고 엿지너

즈의 설함을 하나뇨 원수의 노리를 푸고 뜻지 그 옥홀뿐아니라 전허스 친하는 회포로 다 원  
 수레희왈만일고당이 뷔지아 낫스즉 무삼이리 노리를 부르리오 고향이 갓가오니 셔스를  
 생각하야 정신니 혼미하야 진정의 회함을 참지못하야 여츠함이로다 진빅왈복으로 뜻지  
 잇슴은 엿지함이뇨 하원수왈부모복당에서 별제하신지라 이런고로 복을 슬허하노라 진  
 원수 우문왈이제 고향이 불원하니 엿지쇼분치야니 하며 또스 람을 부러 못지아니 하나뇨  
 원수왈고향쇼식을 무를 줄모로지아니 하되 하주빅성이 병논을 다겨거스니 팔연이 산하  
 얏슬지라 이곳에 와서 츠절 뜻지 밧부되왕스를 거나려 정벌함에 엿지감이 사々를 행하리  
 오적이 관셔를 침노하니 제 위급한지라 일시를 더디지 못하리니 회로에 쇼분하고 가속을  
 츠즈도라가 공을 밧친후에 다시 혼취말미를 바다 명정언순니 성례하고 선제신위를 피시  
 라라진빅이그말이 황당하야 고향찾기를 밧바야니 코츨탁함을 크게 고히이너기나능히  
 세닷지못하야고려쇼못기 괴로와긋치나 십분의혹하난지라 원수심리에 웃고 현루할가  
 더욱도심하더라 디군니 무스쇼할셔바다물결이 고요하고 점풍이 업스니 하원수자법  
 하야 밧셔셔호의다히니 중인나도 무열복하더라 빅호상에 다다르니 수목이 참련하야 정  
 이 핑기어려온지라 군스일시에 남글버히며 들여길을 닦니 심이 괴로하거날 하원수또한  
 목석을 슈운하니 제군장졸이 감이 안갓지 못하야고일시에 돈슈왈우리등이 힘을 다하야길  
 를 닦이니 원수능평안니게시소서 원수탄왈나도 나라 록을 먹으니 수고함이 올건니와삼  
 군은 다 무명지인이라 엿지홀노수고하리오 장졸이 모다 감탄하더라 이에 수십여리를 행

향더니 문득 구린니코를 거스리고 비풍이 여러 날 제군나 다 놀나 거날 원수 왈너 희는 요  
 동치 말나 향교 산상에 올라 바라보니 호표시랑과 허다스 같이 모라 오더니 원수를 보고 스  
 스로 피향야 가는 지라 제장이 더욱 괴이 하니 더라 무사 이 되 홀너 머티 장산하에 이르러  
 는 원수 제장 다려니 르티적이 세 곳에 북병을 두어 가 장호티 향니 소홀이 못할 지라 군스 다  
 함미향고 금야 삼경에 산과 향야 산 좌우에 불을 노흐라 잇세 남무와 풀이다 마르고 초목  
 이거 한되히 불이 성향면림 중북병은 다 화렴 중에 죽으리니 우리 군스 제씨에 분향야 그나  
 아오는데 막으면 슈고 아니 향고 적을 파향리라 제장이 탄복 청령향고 물너와 산을 들너  
 전후 좌우를 에워 불을 지르니로 위성한곳이라 화렴 풍성향야 경각에 그런되히 화광에 어  
 리어던디 조요향고 년염이 창던한지라 적병이과 연세 곳에 미복향앗다가 불의에던병  
 이소로 좃츠니 르러 후야 중불질너 화세편만함을 보고 급히 군스를 거나려도 망코즈향  
 나 전후 좌우에 불꽃치하날에 다 향스니 어티로 틈을 어드리오 정히 망극향더니 겨우 한되  
 홀헛치고 다라 날식하 원수 세 곳을 막아 출살향니 적병이 진퇴양는향고 화렴 중시척이여  
 우향니 곡성진동향고 중군장이 합과시 살향니 적시여 산향고 혈류성천이라 하 원수 적진  
 을티 살향고 군스를 거두니 하나도 상한지 업는지라 이에 둔치향야 밥먹이고 날이 서미다  
 시향향야 관서성하에 니르니 병세티진향더라 성삼십리에 향치향고 겨서를 호진에보니  
 니라 츠설남이 왕달지서 축왕으로더부러 정병오십만을 거나려익 주하주를 파향고 승승  
 장구향야 관서를 췌히미도셔에 잇더니 문득 變병이 르을듯고 제장수를 췌산하에 미복

향야련병을식살향라향앗더라님의피뵈오고 천병이 성하에 니르려겨서 왓슴을 보고 호  
 왕이 서용과의논한티달지 왓송병이 만리에 피곤향고 우리 군시 효용향니 한쓰흠에 파홀  
 지라 파인에게 모스 유취가 장신통향니 가히 두렵지 아니한지라 명일군을너여 한쓰흠에  
 예기를 췌그리이다 호왕이티희향야 명일군세를 각별엄히향야티진홀식호진의장함은  
 명호향고 송병의 효용함은던신갓더라 삼동고파의송진문과 열이는 곳에 일원티장이 늑  
 양마를타고 홍양산을 밧쳤스며 룡봉 일월기를 세우고나오니 좌편은부원슈하적옥이요  
 우편은부원수진제벽이라 청춘소년의 풍채 일월이도 탐홀듯향니 적병이 바라보고져마  
 다신선이라향더라 호왕이출마고 성왕 무명필부를보아향니 중국에스 람은업도 다황구  
 소아로티군을 밧겨 슈고로이보니더나리의 연연약질이미인중에 도절식이되리로다우  
 리로더부러 신무를결우미가소로오니쌀이도라가고 다른장슈를보니여승부를결향라  
 원슈금선을드러 옥면을가리오고 낭연소왈도적은드르라금던저성신문무향스위덕이  
 스히에답혀스리영공향고 만민니락업향거날너밧친오랑키시무와인스를모르고감히  
 중국을엿보니우리던도에 현신명장이거져 두량이나엇지답잡난티티장을보노리오시  
 고로우리성상이날갓튼적은선비를보니스반적을문죄향라향시미니비록년소향나늘  
 은거계용을두려아닛나니네쓰호고즈향거던나의 칼를 시험향고 불연즉알지이향복향  
 면성명을용티향리라 호왕이티로향야바로원수를취향니왕의 위무용명이런하무적이  
 라명호갓치다라드니세풍우갓튼지라 원수정이교봉코즈향더니 홀연잔중에서되정갓

은 소리나며 일원디 장이 니다 르니 이 사람은 곳진 제벽이 러라

第十一回

河元帥胡王生擒而旋縱 陳元帥西蜀再降而既平

하원수가 호왕을 생금하야 도로 놓코  
진원수가 서촉을 두번 항복바다 남의 정평하다

각설진제벽이 니다 라 교봉삼십여합에 불분승위러니 냥장이 정신과 기운니 비승하야도  
금도굴할 뜻지업난지라 츠시 하원슈진상에 서기를 두르고 북을 울여 쓰흠을 도도고 말이  
바라보며 칭찬할 우리 부원슈의 용맹은 거룩함이 죽히 일카를 비업거니와 번왕의 용맹을  
보건된도 한련하에 무적이로 다 하고 입하야 좌우선봉을 지휘하야 각각 철기를 거나려나  
아가원수를 돕게하니 번진중에 서도 이를 보고 또 삼장이 말을 달여나와와 쓰흠을 도  
니 양진에 살기 등던하 고 함성이던디 진동하 더라 오십여합을 쓰호되 승부를 결치 못하 고  
다시 교봉삼십여합에 바야 흐로 적양이 된지라 하원수 형여 소루함이 잇슬가져 허하야 이  
에 디병을 조발하야 일시에 증복을 울이 고 급히 엄살하니 츠시 적병의 디쳐와 서용디 병  
의 함성이 또 한련디 뒤놓난지라 하원수가 만니 진언을 엄하야 음무광풍을 디작하야 연  
귀속에서 적병이 살출케하니 이윽고 음무크게 이나려고 광풍이 디작하야 비스쥬셔하디  
동서를 불분이라 적병이 감이나아 드지 못하야 정이 진퇴한난하 고 정신니 아득하니던  
병이 더욱 승승하야 호왕을 진중에 가도며 철동갓치 쓰고 일진을 엄살하니 죽음이 피갓고  
피흘너니 되었스되 맛참니 호왕을 사로잡지 못하난지라 츠시 호왕이 히심중에 잇셔 평성  
험을 다하야 필마 단기로 좌충우돌하야 크게 짓치니 감히 당전하야 디적할 제업난지라 호  
왕이 세 불리함을 보고 겨우 틈을 타 한영을 헛치고 필마 단기로 다라나 급히 본진을 바라

고 닷더니 츠시에던병이 호왕이 버셔남을 보고 서로 짓쳐그 뒤호로 좃고 즈하난지라 원슈  
호왕에 다라남을 보고 징쳐군을 거두니 제장이 크게 놀나 무르되 엇지 호왕을 잡지 아니하  
시나 노원슈하령왕궁구를 막취니아직바려두라하 더라 츠시에 원슈적슈를 짐작고 이에  
군중에 하령하야 왈맛당이 금야도적이 우리 진을 겁척하리니 각々나의 약속을 드려 응변  
하야 쇼루할이 업게하라하니 중장이 또한 청령하 고 이에 원슈의 지휘를 좃츠좌우로 미북  
하야 정이 셔를 거다리나 맛참니 밋지 아니하 더라 츠시에 서용달지 일진을 디피하 고 도라  
와 피군을 거두어 디오를 밋쳐 정치 못하얏더니 호왕이 츠즈이른지라 마즈셔로 한헌을 파  
하미 서용의 모스 유희음양 일월과 락문디리를 달동함이 잇고 또한 귀신을 거나리 난술법  
이 잇난지라 나와와 일오디던병이 원슈난범인니 아니라 일직우리 주상이 신니 간하느말  
를 뜻지 아니하 시고 정병을 거나려나아가 즈원교전하 시다가 속절업시 한쓰흠에 피함을  
보신지라 신이 또한 디적할 묘책을 엇지 못함이 아니로 디창졸에 술법이 맛참셔의 변화를  
막지 못할 듯하 고 다만 속슈하 고 잇슬 쓰름이라 신니 이제 천만가지로 해아리미잇스나져  
의신고한 슈단을 제어치 못하리니 신의 어린 소견에는 맛당이 슈슈하야 항복하 고 아국스  
적과 성영이 도탄에 들기를 면케하 오미상척일가하나이다 호왕이 듯지 아니하 고 동서분  
로함을 이기지 못하야 죽기를 그음하 고 파적할 묘책을 못거날 유희탄왈디왕이 이렇듯결  
우려하 시나 일분도 유익할은 업고 도로 허히로 들듯하 오니 세번성각하스삼가 소루흠이  
업게하 소셔하니 왕이 또한 범상이 듯고 지삼파적할 계교를 무르니 뉴희왈아직고 식지계

로금야에철괴를거나려군스함미하고던병을임습하야치라하고여차차하하라하니왕  
 이디희하야차야에군을거나려송진에니르니인척이고요한디등측은여유하고잡중  
 에적무일인이라다만장을거뎃난디하원슈관을단정이하고상상에안즈한가이병서를  
 열남하거날호왕이디로하야갈을빛기고제장을거나려급히다라드니하원슈도금도요  
 동합이업고쇼리긋치아니하니호왕이손을들미갈을절노화바리고홀련일신니셜  
 여이에상하에업디지며빅은니즈옥하고정신니아득하더니문득금영쇼리진동하며사  
 면복병이살출하니하원슈하령왕호왕과장사를미라하니장졸이일시에응성하고철삭  
 으로호왕과제장을결박하야새어디하에살이디호왕이불의에미물당하야흔불부체  
 하야우러사보니축광이휘황찬란하며슈플갓튼제장이갑슈를갓초와좌우에서립하  
 고사졸을모도와항오를쳐렛스니위엄이엄숙하고디외정제한디하원슈교의에단좌하  
 야우음을써엿스미도화양협에춘식이씩사하고단스갓튼슈순에욱치현영하야우음을  
 여러호왕을부르며정이일월봉정을출여양구이보다가왈네나의년소약질을비우스며  
 네나히만코용빙함을자랑하야방약무인하더니오날날엇지하야도로혀나의군스의게  
 미이여장디하에저렷듯시썩렷난다이제도모르미전습을가려감히영웅을자랑할소나  
 호왕이청과에눈을부릅쓰고호수를거스르며디질알군즈당당이정도를형하야영웅  
 을결을거시어날엇지이렷듯스람을속여이다지도룡하나노도도의던하취합갓하니  
 비록미이물바드나즐거하복지아니라원슈쇼왕이진짓일른바남아의말리로다니이

제너를노의군법으로잡음이잇솔진딘배그제야무릅홀썩러북면하야항복할다호왕이  
 머리를흔드러우낙하거날원슈령하야즉시노호니라진빅이그욱이불열왕이제한살도  
 허비치아나강적의군신을성금하얏거던엇지이갓치노화후일근심을삼나요원슈왕장  
 군은아저못하노도다쳐적의현명이아직머렸고군빅이정이진치아났스니위령으로죽  
 이미길죄아내라이러무로아직노했다가다시성금하야항복바드면중국위엄이더욱빛  
 나리니긋하야죽여무어세유익하리오하고정이호왕의교전함을기다리더니초시호왕  
 이도라와다시장졸를거나려금고를들이며남합하코나와쓰흠을도하하원슈쇼왕초  
 적을너막잡늘거서니원슈난그굴혈를임습하야항복바드라니호왕을노화장군으로하  
 여금디공을일우게하리니모로미도심갈력하야그르미업게하라하고쳐축디도를너  
 여유며왈하마산에적의양초잇스니밤으로가만나아가양초의불를지르고축으므로드  
 러가되숨어나아가밤을타세를무어가만나바다홀건너가라다만강변을건너기어려오  
 리니모일모야에편셔에다사라난산처슈체를다막앗슬지니먼저산처로나아가양두와  
 향축으로신명게제하미축문을여차차너보고니부작을쇼화하라유야를헤지말고군스  
 를숨겨아미산에나아가라니에셔응변하야도으면산처조연피홀거시니연죽건너기쉬  
 오리라드디여한장부작을준디진원슈바다감초오나하취우왕산처를과하고관을지나  
 계양산어귀에밧쳐는좁은길이잇스니호왕이너게피하야그리로갈지라디함을과널이  
 교우홀덩허두면적어후야에급히가다가일시에함몰하리니장졸을스로잡아가지고그

뒤를치면항복하리라진원슈청명하고이에정영산에나려가々만니함미하고각도로히  
 항야하마산으로나려군수를전후좌우산로에숨기고원슈날빛출떡야놓흔뒤을나양초  
 쓰흔곳을바라보고활에살를먹여화약을쓰양초를바라고쏘나살박힌뒤화약불이이러  
 나화광이충렬항야누만석양초잡시에지되되라직희장슈불의에불를만나밋쳐구쳐못  
 항고정이황황할적홀연복병이세곳으로이러나총살항니편갑도남지못한지라진원슈  
 이에군수를두루허촉으로나가미디도를보와군수를히게항니본디총명한지라군수  
 슈고롭지아니타라촉군니감히나와막지못항거날승々항야관하에니르러산치는각디  
 오수치는디히라철교로가로막아비도도히치못할지라바라보미수륙을다막아지날길  
 이업스니군수다라담저상항야일오디산로험준함은조고로촉중을닐은비라겨우촉에  
 다々라관을남항라할식날기업시는못지날지라우리수고함이화중병이되리로다진원  
 수놀나디세를살피군수를정돈항고라치든날에목욕제항고촉문을넘을시흥단일팔노폐빅을  
 밤에또한산하에이르러산영게제할식술노써버리고촉문을넘을시흥단일팔노폐빅을  
 불살오고하원수의부작을또살온후다시도라와스졸노써적진동정을탐지항더니과연  
 야심항미후귀스면에이러나피홀덥고음풍니스괴항야디우붓드시나리니다만산상에  
 만오고광풍이디작항야촉군산치를다쓰러나리니촉군니풍우를만나견디지못항더니  
 홀연누린니기치며시랑과밍호수업시모혀진중에드리다라어저러니짓지르미모든군  
 수괴살항니산치야도파한지라드디여풍우긋쳐고호포다혀여저청랑일빅항니진원슈

디희항야이에군수를거나려피히오르니각별잇칠거시업고적진에바린의갑필마군과  
 를다거두니라산협무인쳐로무슈이지나관으로나리니바로병게양산에다다과과연좁  
 은길이잇고두편에티산니막혔스니디함을파고우홀가리와두고군수가만니밤으로써  
 를모와타고바다홀간너바로성하에나가니위엄이등던항고그제산악갓항야풍우갓치  
 모라오니군중상하다출스항고다만제조목신니성을직히엿더라불의지변을만나디져  
 지못항고스문을구지직히여구급표를지어국왕디쳐로보니라시에호왕이단기로도  
 망항야본진에도라오니셔용왕이마조정히계교를의논항더니뉴희진왕련병슈장은신  
 인이라그년약함을경히녀기시나그괴묘비계는녀상공명에뉴요신술변화불칙항니감  
 히디져지못할지라시고로동시면척을싱각지못항니삼가스직을보전항소서왕왕그디  
 엿저져의여기를기리고우리군심을어지리여마음을최찰케항나뇨그죄중한지라그러  
 나또한비부에유쾌잇슴을짐작항노라유희변식고물너나양련장단왕이난련명이라너  
 간언을용납지아니코도로허날들의심항니망치아니리오항더라적병이구지직히고나  
 지아니며군마를쉬오고송진양초진기를기다리더니홀연양초불붓튼소식이이르미번  
 왕이디경실석항야아모리혈졸모로더니셔용다려살디왕은본진을엄히직히소서과인나이  
 디경실석항야아모리혈졸모로더니셔용다려살디왕은본진을엄히직히소서과인나이  
 제도라가본국을구항고양초를다시모호며제로군마을곳쳐일루허형제를도으려항나  
 이다항고십만병을거나려그를지우고북을긋쳐각도로히할시유희의게청항야왕장군

은군사를보니여 뒤홀막아 불의지변을방비하라 유희왕필연복병이잇서위히하리니 신  
 이맛당이뒤홀쫓츠구하리이다왕이응답고군사를거나려본국으로도라갈시여러날만  
 에본국에못밧쳐서는인마를잠간쉬더나 문득신병을만나니 능히상적지못하고속수하  
 야히심중에잇스니 하회엇지되고츠하후적진동정을살피고져도라가는길을얻코저  
 하야이날중로에나아가적진을일우고진언을염하야풍뵝을부르고스면에돌들모화적  
 진하야행계하니사람의눈과귀에들이지아니케하고오히려그군사도알이업더라하하  
 야월남산에복병하고돌들모와진을치고림중에숨어잇더니과연호왕이병을거나리고  
 지나다가적진중에들이돌이화하야살출하니호왕이불의에변을만나밧쳐수족을놀이  
 지못하야돌이셔로부티이저군막다죽고홀노충들하야적진을헛치고도망하야나와남  
 은군사를점고하니십만철거거오오빅고는남아죽음이꼭중에쓰이고피홀너니히되엿  
 더라남은군사다라도부러지고팔도뺏쳐저일인도성하니업스니왕이양던동곡왕니과  
 병함으로붓터피한곳지업더니이번은진실노하날이늘를망케하심이로다이제적이어  
 디숨엇슴을아지못하니진퇴를엇지하리오아못커나본국으로도라가구쳐할만갓지못  
 하다하고저셔이살피보니광풍은긋치고초군은다흩어오군마는다돌이라인적이적요  
 하고일석이명량하야산중이고요하니왕이경아하야실석왕분명귀신의희롱이로다하  
 고이의늘노심신을진정하야도라가되하후의복병이잇슴을아지못하고하후의신술도  
 괴이하고호왕의용도무던하더라원리하후적진에길을두미진법으로성공케함이라

하원수호왕의도라간후산상에올나군사를숨기고스스로남게올나적병이이르기를기  
 다려신술노류회를죽이려하더라어사에류회형군하야이에다다라호왕이피함을듯고  
 양던탄식고밧쳐구쳐못함을한하고또하후의신술이물알미크게두리더니문득사면에  
 로후버붓드서오고음운과광풍이되자하야던디를불분하며산상으로서군마타발하야  
 금고제명하고합성이되진하야나난살이눈날이듯하니군사감히눈을뜨지못하고군사  
 다시석에마즈죽난지라류히되로하야급히도술노신병귀술를부르며음우광풍을지어  
 니니하후또한던병귀술들디발하야진언을염하며노병스기를제어하니귀졸이호터져  
 감히나오지못하난지라하후단당도신술이오류화난요술이라능히씩지르지못하고검  
 하야산하에잇고하후는산상에서신병으로뒤홀막고압호로되군니죽츠나류회갈티공  
 파제갈양의신룡이잇스나엇지버셔나리오분역하야신술을헿치못하니하후가만나신  
 비전을새혀류회를향하야쓰나양미간니마즈씩뒤홀쳐쳐스나한소리를저르고마하에  
 떠러지는지라좌우제장이일시에다라드러머리를버히니즉시신병이간디업고음위호  
 터지며일석이명량하더라죽음이산하에쓰히고피홀너니히되나하후양던단알츠적이  
 섬복되화러나이제소랑하얏스니본디일리아너조로명만인성을히할줄알아오이길  
 죄아이니적양이두렵도다츠란하고항졸적장과의갑마필들다거두어본진으로도라오  
 다저시진원슈계양산어귀에디함을공고호왕의피하야도라감을듯고헿과치만베플고  
 거짓복을올여성쳐는형상을하라고철기이천과함거와철삭을가져가만나계양산디



합속에 숨었더니 과연 밤에 호왕이 총망이지나다가 인마 일시에 구러지니 문득 좌우로  
 화광이 도요하며 북병이 일시에 외되 호왕을 몬져 잡나니 를 중상하리라 소리 진현하되 호  
 왕이 력발산이라 군식 갑히나아 갈지 업거 날진원슈분연니그남은군스를 다 버히고 살을  
 찢혀들고 호왕을 향하야 뒤호왕네님의 우리 계교에 썬져 함정에 드릿스니 네목슈과성지  
 할플함이 도적에잇스니네스직을보전코즈 할진딘항복지아니코엇지려하느다네만일  
 항복하면네목숨이남으려니와불연즉반복죄를찌이제육장을민들이라호왕이도라  
 보건딘싱도는업고죽음이목전에잇스니 할일업셔분을품고크게소리하야답왈너님의  
 전언약이잇스니장뵈엇지실신하리오만다시흥복하리니맛당히용셔하소서진혁이오  
 히려만할가하야창금과갑을다앗고합거에너허압피거나려호성으로나아가니놀이님  
 의복엇더라원슈함을성상에늦코제즈목신을불너왈네아바님의잡혔스니네이제도  
 향치아닐다목신니아모리할줄모르거늘호왕이불너왈오야은셀이성문을여어런병을  
 마지라목신니문을여러마지니원슈비로소군스를드리고왕의합거를푸러노호며웃고  
 왈우리원슈는당금신선니라티공과제갈량을압두하리니왕의무지용명이엇지당하리  
 오년소함을웃지말고빨이귀순하야나라흘보전하라왕이양런탄식하고급히군스를보  
 니여이뜻즐고하라하코스스로원슈를청하야군중에드러와상좌에안고되연을베퍼군  
 스를먹이고풍악을주하니원수주비를맛보더라번국군민니진박이나히어리되위풍이  
 늠늠하고상피당당하야괴이한용피좌중에썬혀나니칭찬함을마지아니러라왕이진보

주비과미녀절식을밧치니원수스양왈너우히주장이게시나엇지천즈이스정을바드리  
 오하고물이치다이에반스하야도라오니호왕이공헌지물을갖초와뒤쫓츠가더라어시  
 에원수군스를도로허호성을썬날식도로산런을들너보고말서히밧고여님의경물이시  
 로오니탄식왈인성이비빅제라추월출풍이솟갓치치니코일신니전장에분주하니비록  
 성공반스하나고당이뵈엿스니외무천척하고관관한호구논어디잇는고공주는비쇼원  
 이라고감히시를저어마상에서음영하고날호여형하더니문득길히셔호왕의소졸를  
 잡아밧치거날무러왈네엇던사람이다호왕도님의항하얏거날무삼간계로스기를살피  
 라하느다쇼졸이올며고왈쇼적이본디다른사람이아니오셔용왕의모스류희장군의심  
 복쇼졸이러니장군니득도어런선하고진일의환술로몸에던기어리고눈에일월정화잇  
 셔인간유회에버셔나고하날를썬치고싸홀스못한슈단을가져제상을비록속이나그쥬  
 성은녀성이오리음정과신상에들녋스니이분명부인니라삼군니녀진졸아되고저의게  
 겨셔를저어보니여너즈로셔음양밧고물알게하면그네기를씩글거시로되다만우리왕  
 과런축왕이다호적하느니라만다시쓰호지아니코닷도와남교하고달너려한즉자중지  
 는일러늘지라시고로발설치못하고냥계로절제치못하나그슈단니너게잇나니엇지하  
 리오하더니월남산에호왕을구하라하시다가맛참니그계교에썬져천병주장의살에명  
 맞치니뉘웃치나엇지하리오슬푸다류장군니신기롭더니런병주장녀신선니을졸엇지  
 아르시리오기녀장스느스스로슈히아랏더니그몸을아조맛도다쇼적은그은혜를싱카

교신체나 초조못교싸라죽으려여러번왕리하더니또한잡힌거시니다진벽이로왈우리  
 주장은던도더신니라엇지이런요망제설노군심을요동하느냐노박비너여버허라하고드  
 디여참하니이름멸구함이러라원슈말를드른후심스산논고의심이밍동하야심리에  
 혜오디원리하제옥의근본니저셔차아니하고그용모괴질이진짓미인니라행동이다의  
 심되야평성과례함업고디소변을남과갓치아니하며음식을셔먹지아니코범의심  
 분피려하되그인물인즉관홍달하야품성이남과달나그러하다하더니기간연괴잇도  
 다도라가동정을살피리라하고총망이도라외축성치든수말를고하니원수디열왕셔평  
 공에진장군니제일이되리도다인하야류회죽인말를너르니진제벽왕이제항복을받고  
 조할진딘그소혈을아조업시함이엇다하노하후왕불가하다던하중원맛근비록던죽국  
 을멸한들화근니업스리오이른바곳절역지국이라강하고곳제미크거날이제목성을쳐  
 파하나셔용이엇지틀시하리오몸이만리밖게잇셔히받고앗스니귀심이살갓거날셔  
 용과셔로쓰호미길치아니하고목시국독이아직도머릿스니비록다죽어나다시나리니  
 던죽이중원과만리밖게라티산니막히고디히들넛스니실어금왕화밋지못하앗스니고  
 어에갈왔스되죽이견용을이웃하야면제멸치못하앗스니이제그항복한거슬과멸함이  
 인의아니오던하도라음을뺏치미라고항복바듬이죽하거날셔용이다시축괴멸을드러  
 결단하라함이라한디다을히너기더라부원수길에셔체담만나죽인일을전하되오직너  
 장이라하던말를아니코살피미각별하더라하원수진원슈와제장을다리고제갈무후요

를초조고적을구경홀시분묘되락하고고산니화락한디비석이침해하앗는지라셔스를  
 감상하야탄식왈능운던기요슈하고신출괴물지락으로한실을중흥치못하고지금유전  
 은천고영명과충절뿐이라하고천히묘소를중수하고비석을다시세우며제전을갓초와  
 제문지어향축을성비하고제장을거나려묘전에아가제스를꼭진니지니고그기제한  
 충성과던디에덤힌제덕으로한실을중흥치못하리오공일우기난슈중에잇거날엇지도  
 로허손권스마의를머무러한실에화근을삼으니오회라이엇지던명이아니리오마는년  
 니나만디충절은무후뿐니라또한하제옥이흞모고강기하미그시절을한가지로못함  
 을한하더니우연니묘하를지날시도라보건된삼군에잠복하든터히한춤글이되였고  
 선성의위무당략으로싸산두고분니되였스니차회라던하인스이가도다제옥이선성  
 의관일지등을감동하야일비주와일성체로묘전에비헌하나니신녕은비박지례를흞향  
 하소서하고제를파하미초연타루하야강비희하하고던도의무심과귀신에신기를한탄  
 하며인하야저기신세를싱각하나더옥슬핀지라이에제장을다리고군졸를거나려천하  
 묘전에나아가묘스와비각을봉심하고하후천니묘전석비에삭였스되모년월일에디송  
 병부상셔검병마디도독하제옥은셔하노라하고도라을셔진원슈제문스의외행동거지  
 를저시살핀후의심이밍동하나감히못지못하고침음찰식할뿐니라하원슈류희를남산  
 에셔죽이고그머리를함거에너허한장글월를민드러셔용을달리여갈오디목성의계언  
 을듯고중원을반하나디등이아직머릿스니던명과시슈를모로고망영되이디너을범하

니엇지망치아니리오이제항복하면도로허복을바드려니와그럿치아닌즉셔축의군스  
 를음겨셔용에나라을쇼탕하리니뉘웃치나밋지못하리라하야셔용체에보느니셔용이  
 류희에머리를안고등곡하며아모리할줄모르거날제장이간왈셔축이필연과하리니우  
 리류장군니죽은후엇지감히런병을디적하리오가히항복하야나라할평안케함이을호  
 니이다셔용이을히겨사즈를관디하고회셔를닷가스죄하야보내고군중항의를제우  
 되오히려셔축의별을물나즈저하더니셔축시이르러항복함을청하얏는지라할틸업셔  
 목신과한가지로항복하거늘제장이하원수를피셔셔용을마즈킵레로디접하고디의로  
 절척하니위의능연한지라달지송연경복하야위덕을감동하고물너와명일셔용이공물  
 를갓초와니르러항포를을이니원수군위를엄속이하고불너드리니셔용이벽의로실형  
 포복하야중군디하에다다라고두청죄하니호위장도익현니불너왈호왕의죄만스무셔  
 이나우리원수관인명후하스죄를용스하시고득은으로항복바드시니반복지아니라하  
 거든정연에을나성화를밧즈오라왕이비스하고던에오르니원슈몸을굽혀죄를유거  
 늘왕이스양한디원수히위하야갈오디왕의반역지죄는극률에맛당하나우리성런즈의  
 민지정하시미그후를멸하심을참아못하시느니라그소혈을아조멸함이성슈의인화아  
 닌고로죄를스하고항복을밧나니넣허물을곳치고셔로덕을닷가디송에귀순한즉엇지  
 디접지아니하리오왕이불감고스하고죄에드니풍악을질유하고유찬을나아와한가지  
 로질길시원수주벽에좌하고빅모황월이전후에버렸고황금갑의용포를새납고동던금

관에상방금을잡앗스니상운니이이하고스벽이도요한디제장이갑주를갓초오고금극  
 이삼열하얏스니위의엄속한지라번왕이송연이두려워숨이나직하더라제장으로무네  
 를시험하야번왕으로위엄을외고락극진환하미번왕이하적을고하니원슈거리경계하  
 야반복지말나하니왕이비스슈명하고공물을드리니원수미녀를밧지아니커날진벽이  
 가만니웃고갈오디로수즈로심히적막하니져미녀를바다킵회를위로함이가하니이다  
 원슈쇼왕장군니녀석에주린거시미남도그런가하되나난본디녀석을블판니거노라  
 중원니미석이적지아니커날엇지호녀를갓가이하리오이런회담은두번니르지말니제  
 장이드르면히로을가하노라진벽이계슈무언니러니번왕이도라가고디군을관셔벽리  
 에마즈안돈하고디연을여리장스를디접하니삼군니용략하더라미녀를드려가무코  
 즈하니원슈물이치고첩보를답전에보하나라이날연석에하원슈홀연피곤하야아미를  
 썩고고괴운니취하야잔치를밋쳐파치못하야셔진벽이와청하야별스에도라와실시중  
 장이호위하니그위의혁々하야군왕의위의라원슈다물이치고진벽이홀노물너나지아  
 니하니원슈왕장군의쇼님이중하니니몸을디하야제장을거나려도라가군정을다스리  
 미을커날엇지이에머무나노딘벽왈블가하다원슈유병하야기스에머무니장스피심적  
 하거날다보느시니이엇진일이니잇고하물며나늘골육갓든정이잇스니원슈를엇지홀  
 노두고가리오결판코말이려나지못하리로쇼이다하더라

第十三回

撫河公之雙乳陰陽始制  
 鮮陳伯之九疑婚姻強脅

하공의젼술어로만저민음양을베르소판단하교  
 진벽의구의를블미혼인하기를위협하다

초설원슈부담하더라시야에하날이말고별이드무니원슈문을열고그상을살피미안광  
 이도요하야두우에쓰이더라이우고던문을보다가홀연미간을썩고여왈동방에반신니  
 또이러나관동이쇼요하니우리군스밋쳐가지못하야셔도셔나려이권군스를음겨동정  
 하라하시리니정벌이똥철씩업스리로다진빅왈어니시절에고국에도라가리오원슈왈  
 형은록々한아녀조로다남이던병만마를거나려벽허창파에회형하야이적을쇼탕하며  
 공명을죽빅에드리오미장부의패스오위엄이화에진동함이아람답거날엇지구々이  
 고국을싱각하는노반다시공슈를위하야가기로되오미로다진빅이소왈진실노공슈를  
 싱각지아넛노라우리쥬야한마의슈고하야전장에분쥬하니무어시도호리오성공반스  
 하야던안에도회하고고구천척을받기며한가히평형상이되미아니도호라엇지정의  
 지언으로억뉴하니노하후소이붓답이러라야심하미하회이에웃옷만벗고벼기에높거  
 날딘빅왈원슈질괴잇스니몸을편니하야도리함이를거날엇지웃슬납고밤을지너리오  
 하회왈너평성버르시그러하니병드다곳치리오하고동서벗지아니하거날진빅이권하  
 다가못하야스스로하원수의누은벼기가에누으며그손을잡고머리를만져보니가장덤  
 거날경여하야왈동계비경하니가히마음뜻치못하리로다한마에적상하야약질이병이  
 낫스니도심도리하소서원슈갈오덕우연한병이라곳하여전장에상한타시리오수일후  
 면자연나으리라남으로도차말하되마음에는딘빅에여초일압함을불평하고괴롭기를  
 이기지못하야향벽하야밤을쉬오니딘빅이본디정이중한지라저의약질이고통번민함

을우려하야스스로몸이알픈지라또한잠을일우지못하더니명도에제장이문안하니원  
 수강잉접응하니옥안에홍광이취지하고호흡이천축하야겨우안색에의지하야중인을  
 수응하는지라제장군졸이다디경실망하야분분니문안하는지라진빅이십분민망하야  
 원슈를권하야도리하게하고중인을다물어치고하후를되하야왈의스를불너치료함이  
 엇더하노원슈왈너병은스스로아나니너명심하야음약하리라하니딘빅이약을천니다  
 러맛보고원슈과나오니원슈비록슬허너기나마지못하야먹거늘진빅이또다른제장을  
 불너맛보라하야먹은후나오니원슈미우를썩고여약너스납다하고접구치아니하니진  
 빅이더욱의심이동하야범스를살피미그눈치를모리오마는스식지아니러라슈일후  
 병제더하니능히병을이기지못하야사람의게붓들여좌우로동하나원슈또한다른사람  
 을갓가이아나진빅을기다려이러안고반다시사람을치우고병장을두른후되소변을보  
 니무정지인은무심하니오직진빅이유심하더라하후병제점점침중하야식음을전폐하  
 고괴운니저상하야정신니혼미하니진빅이그고혈한인성이만리전진에병제이러듯위  
 중함을추연하야정성으로구호함이동과갓트니원슈감격하야하더라일々은원슈약환  
 을너여진빅을쥬어왈너괴운니막힐듯하니형이약을가졌다가너막히거던여쳐여쓰  
 라진빅이바닷더니이욱고괴운이혼미하야옥안니찬저갓트니진빅이이거동을보고창  
 황하야슈족을쥬무르더니아조혼미하거날약쓰기를날히고남녀를알고조하야빨이가  
 슴을보니과연너조라다시좌비를보니옥비에잉점이찬연하야규슈분명하니진빅이탄

왈련하에이런녀즈어디잇스리오근본은모로나똥진즉니게잇고다른디잇지아이니  
 취치아니코취취호리오호고급히약을가룻친디로쓰니과연숨을뉘여쉬고정신을츠려  
 눈을써진빅을보미님의탈누한를알고일성의호에길리한함을마지아니코향하니구슬  
 밋듯부용이향수에잠긴듯찬연비의호니진빅이위로왈엇지병이이디도록호요편히도  
 리라하휘할한막々호야쌍경을홀여진빅을보고언식이표々호니진빅이참지못호야  
 낮출다허가만니일오디니아니그디약절노군중을즈님호미고금련하에이런녀즈잇  
 나나휘비로소버키를밀고니러안즈왈그디의심호던줄아나니그아난연고를니르라정  
 언간에제장이문병호고죽음을원호니피츠말를긋치다후병제차되잇스나심시불호  
 호야종일도록취금으로낮출쓰고일속미음도나오미업스니진빅이또한심신나산난호  
 야미스에념이업스나죽음으로권호야것홀떠나지아나언어구々호니하휘제장을다물  
 니가라호고홀노진빅으로더부러말삼할식진빅이문왈성이다만소저의게빅제연분니  
 잇슬지라엇지쇼회를감초리오근본을즈시일너성의마음을꽤게호소셔하후괴운을슈  
 습호야디왈그디날를아노라호니장츠누로만너기나노너근본도모르며감히이런의스  
 를먼저품으니만일너다른디빙한곳지잇거나혹즈척의로혐의간섭한즉엇지려호나노  
 니과연유시에결약호고슈빙한곳지잇나니그디이갓튼념너를두지말나진빅이청과에  
 괴운이저상호고간담이뉘여저당초부터고향에슈빙한곳지잇노라호더너혹그럴시를  
 혼가장신장의호야안식이여도호니반향을침음호다가정석왈원슈님의허신한디잇슬

진딘엇지제빅에게똥즐머무르미정영호더노처음부터늘과천절할뿐아나비록무망중  
 이나좌와속식에동침동좌호며집슈연슬호야님의남녀디절을일엇고도금호야난그욱  
 이살과니타인은다말이호야위심이거절호되오직니게난병중몸을바려좌와과게에반  
 다시제빅을기다리고음식을한가지로호야비록이성지합이업스나남네천호야례를일  
 헛스니이노그디형실을일호미라도호늘을썩짓나노만일진짓말갓들진딘련하에더  
 러온게집이라그디엇던스람과결약호호나노니게허신함이분명커늘나는만무일실노  
 밋나니아란지오리되능히적발치못호고미스를살폄나니쌀이근본을닐너의심을빙  
 석게호라하후미々이웃고침음양구에왈그디감히늘를이러듯곤욕호나노물났슬적은  
 아모리거절호야도무정지스라키회치아나나도금호야는근본나나타나남녀디절이명  
 자호나스럼호는쳐디니심상호리오그디의심호는줄아랏노라니병이풍상에축상함이  
 아니라음양을밧고왔슴으로조화옹의희롱이되여저앙을만나근본을그디의게탈로할  
 떡라니또알으되할일업서스중구성으로약을그디의게맛껏거늘그디무상호야사람의  
 금함을늘희고스욕으로나근본을알여기흔즈최를먼저살피니이엇지미든비리오너  
 근본은종용이설화호련니와그디로이왕에천절함은타인과다름이만호나봉우지정이  
 즈별함을미더미스를형함이라무삼타의잇스리오그디금일노부터늘보기를종미갓치  
 호며슈시갓치호야피츠명교의죄를엇지말나진빅이후의손을잡고로왈원죽에도하성  
 이업나니어니곳으로니누의되며어니편으로나의슈시되리오한번집슈호나두번잡으

나어이다르리오딘평의쳐는다섯번기가얏스되진평이한상이되었스니그디남녀체  
 면을불관니너긴죽더러온녀조로형실이비천할지라니또공경한뜻지잇스리오그디망  
 말합시오만일수빙한곳이잇스면이느냐의부인이라엇지의심하리오하휘손을떨치고  
 물너안조정석왈그디는왕스를일껏지말고초후나경심게지하야명교를저바리지말나  
 다만그야는뜻슬듯고조하노라딘빅이드디여류회에쇼졸의말노죽초아랏슴을전하니  
 원슈의심하야왈니당초에초적이라떨줄알고심복디환니되야니형용을감초와급히죽  
 여업시하얏더니오히려여당이잇서맛참니누설하니또한련이라색일딘빅이하쇼저  
 를등하에잠간보왓스니세월이오리고음양을변체하얏스며더욱선약을먹엇스니선풍  
 이일위탈속함을분간치못하고죽은하시스라이갓기는천만의외쳐다지못하나초스  
 를당하야는의심이빅출하야전일그형용이하시와갓튼졸미양반기고하너기더니금  
 일환향쇼분하고성친홀뜻사업셔니무르면빅단츄탁하더니원리잇갓튼연괴랏다옥쥬  
 쇼저는본디티익지에익스하야청운산도봉하에분퇴놓하쇼절비석이두렷고사시향  
 화를받거늘장초어티로도라와세상을속이나노백하이하시흔빅이화하야스람을회롱  
 하는가진짓스라와단말린가꿈이라하야도아니요성시는만무하니가위진위를분번기  
 어렵도다본디늘과유약이중커늘또다른티수빙하니아지못케라엇던곳에결약하얏  
 는고하후미쇼왈공이하시게실성하야곳곳지의중이출하기로늘들하쇼저로아니엇지  
 가소롭지아니리오스조는불가부성이라하시님의죽은지오리거늘엇지허망이의심하

上

나뇨나는하쇼저영혼도아니오하시본상도아지못하니하쥬하직육을망영도이아나뇨  
 진빅이닝소왈늘들가지록속이라하나나만일옥쥬아닐진딘하희지설이아니냐그디부  
 형은엇던스람인고그디족보를저셔이々라그디아비두리아니면하희지설니々그디  
 는이이성각하야빨이가랏차라니가이두번속지아니라하휘관울속이고미々히합소  
 하야침음하다가그동시괴이지못할줄알고할릴업셔일성장단에비로소이러절하고스  
 레왈공의티은을오늘이야스레합이늦스온지라공이저육의로부살오신은혜호련망극  
 하니감겨함이써를바르고살를허러도남을거시로디티계를품고동적을감초무로감히  
 스척지못하나평일폐부에삭이고홍중에괴록하얏나니사성에엇지다갑호리오죽어디  
 하에도라가합호결초하리이다옥쥬의죄악이중하와하가녀성이형혀신명을힘납어오  
 늘늘이잇스니슬푸다옥쥬구슈의몸으로금일에밋춤은로부에남은날들바라미오문호  
 를회복고조합이라정스가련하고게교궁진커날하늘이도으스요형공을일우니이제도  
 라가남군게저스를진쥬하야은스를남을가바라미라슬푸다세상을오리속이문신명이  
 미이너거고이한병으로그디게면저단루하니엇지련슈안리오공이날들의심하야도오  
 히려근본을쳐다지못하니짐짓아조속여군중에잡되게함이업게함이어날문득아라보  
 고이갓치곤욕하니축쳐에너게교괴루하난도다언필에옥안니참담하야쥬루이음츠니  
 진빅이급히붓드러안치고비로쇼상패하야심스등운한듯늘납고반가음이하날노져나  
 린듯도로혀살인가의심하니그황홀한심신을엇지다괴록하리오다만보고다시보와우

어왈척일축하에셔홍상치의로보왔다니금일축하에난금관금포로보니비록체피다르  
 고음양이변하얏스나면목은과연하소저로평일그디용모하시와갓름을받기나실노만  
 무지스라유의치아얏더니진짓지척이천리로다던디간에이런디이한일또잇나니평  
 일그디비명절스함을동남골슈하얏더니엇지이곳에서만날줄뜻하얏스리오그디난은  
 혜를일갈지말고빅년동유하야고락을한가지로하고동혈뜻글이됨을바라나니또무삼  
 보은함이잇스리오닉이제는그디를만나스니죽어도한이업스리로다성과그디는삼성  
 속년나라만일련의아니면엇지이러하리오원건던전후변과와슈미곡절을다시듯고즈  
 하노라하취탄왈비록척일언약이잇스나기간인스변혁하야는처함이여러가지라인연  
 니망단하니엇지부스로의논하리오니불행하야가녀성으로인륜의변을만나다시신  
 인을죽츠산림에류락하고도가에슈학하야속티를버셔진념이스라지고제상년분니업  
 는지라다시인간에신고함은로부와문호를위하야스오년말미를더하산하얏나니엇  
 지오리홍전에머물이오공은본디분디에장취하야물욕이잡것스나가히날과일이다르  
 고더옥니몸이심규녀즈로산간에류리하다가만도문무와비견진퇴하야일항동역이되  
 고용병명장으로동정서벌하야황형던하하미호진병마에승피를결우니남즈중에도호  
 곁이라엇지규문에죄인니아니며부도에어그러졌스니던하기인니라감히명부하에드  
 러공의전정을그르게하며성문던덕을욕하리오니규중소임을바리고금인욕보를잡아  
 황형던하하니괴은니발호하고마음이방탕하야평성에절거온일이업나니니참아맑은

지기로써구구한아녀즈의도를감심하리오하물며피츠누루한혐의선병에무익하니인  
 연은다절한지오랜지라하물며공이황은을써여초방가괴목하에잇스니엇지감히타인  
 을싱각하리오국법에부마양체업나니공이감히취를구치못하리라또한남군니용납  
 지아나리니공이의탐한죄를어듣거시오나의구츠한인연을첨망함이범의머리에미암  
 이쇼리라공은헛된념녀로던로를엇지말나련의를순종하야부귀를안향하고공슈로빅  
 년을히로하면인륜을완전하야진시문호를빚니고종스를창성하리니깃부지아니며날  
 갓든하가녀성을거릿제지말나진성이진목로왈그디감히날를티하야공교한말노거절  
 코즈하논다그디엇지이런불인지심을품었나뇨공슈를닐으지말고상대의직제라도갑  
 히간섭지못할거시오부월이당전하야도두리오미업고왕후장상의부귀라도그디날노  
 더부러구약이집흐니사성에엇지면하리오श्यक음녀에게속은일노신누를삼아혐의하  
 니이느무정지스라엇지소소곡절노디륜을폐하리오그디부도를폐하얏다하나각각섭  
 거쳐신의격린이잇스니엇지한갓녀도를직히여일절의논하리오그디형스스스를위함  
 이아나라례의외명절을위함이라목눈에지회잇스니비록성인괴질이정하나뉘시비하  
 리오이진짓녀중영웅이라엇지한갓눈섭을그리고침션을다스리미부덤이라하리오그  
 디이갓든형스로써무쌍한저덕과안식이범비하야고금에독보하나그절효죽히아모누  
 덕이라도씨슬지라설스그디죽어도바리지못하려던하물며이제스라일척에모되니이  
 는련하에업는미스라가히정명을일위빅년동유함이인룬디절이라무삼구의함이잇스

리엇지구구히명리에굴호리오그되는은혜갑기를닐오지말나싱죽동죽하고스죽동  
 혈호야빅년죽락을한가지로호면무삼더바랄거시잇스리오그디난다만익쓰는뜻즐감  
 동호야스싱을한가지로호야두뜻지변치아니호면싱전화락을구련에도라가도하니업  
 슬지라그디늘을위한마음이니그디위호는정성만호라하후미소왈지옥의잡은바는지  
 심썩니라엇지갓틀리잇스리오빅이숙제와죽티빅을효칙고스할이오명공은효귀와미  
 성이되고호니두스이남루와부극이라엇지비호리오진빅이어허업셔슈미를거스르  
 고봉정을부름써후를속시호니닝괴쏘이느니라하휘도로허우민호야옥안니슈식호고  
 쌍아를빈축호며머리를굽혀빅말이업난지라진빅이참지못호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호미심신나스라지고장괴최찰호야참담반향에간절이비러왈진실노못나니그디실  
 정을닐오라과연날를거절코즈호나뇨여초죽그디용신치못호리라이데는죽속을피호  
 앓스나그디는가히무어슬빙호야가기를죄오나나는승이오그디는절이라양인니  
 마음이금셔갓치구드면비록련위라도능히버리지못호리니빌건던나릿뜻견집말고나  
 의정성을숭피장부를그르게말나그디당초에날를피화케호야스랏스나이제맛참닉바  
 리면이난다시죽이미라찰하리쳐음아니구함만갓지못호니그디나의청춘을어엇비너  
 기라니디장부의념치로몸에응복을착호고아너즈의게이결합이구초호기가죽난이에  
 셔나지못호도다언과에스괴저상호야만념이스연호나하후불승강기호야번연역석호  
 고손을살며시싸혀염슬단좌호야나죽이디왈즈고로영웅호걸도미녀성석에혹호야련

리오그디이릿듯도가를빙호나그부친을살오려니목숨을앗기지안앗스니이느그디  
 를위함이어늘그디엇지구부호은혜와삼죽구활한덕을싱각지아니코돈연니여초거절  
 함이철석갓호니그외천너소함이심호며박절함이이에밋쳤나뇨다만한호는바는닉그  
 디에아득히셔닷지못호야그간홀에짜져나의심천을엿보게함이통한한지라그디장초  
 비약고즈호니이참아스람에일이라도로혀적불션니되야반다시련앙을바드리라그디  
 늘를진정으로거절코즈호면이느이심을두미니또한어렵지아니라금일이라도제장  
 중맛당한즈를갈히여그디뜻둔곳에닉가히중미되야결혼성친호면니또한거릿제지아  
 니호려니와그밤근비록용디치아니리니그디는요란니일오지말나승련남디호야도비  
 죽기를한호야찾고말이니그디는일언에결단호라하후처음은소안니미미러니말단에  
 이르러는정석로왈그디말호는님이더럽고듯는닉귀를씻지못함을한호노라공이비록  
 저러호나니만일사미를한번셜치면그디장초어디로향호야초즈리오공이늘를욕함이  
 이릿듯곤나호니닉죽히가치아니아나니나의삼죽과부친을구한은혜는호련망극이  
 라갑고즈한죽분골쇄신호야도남을거시니능히인간에서다갑홀길이업스니죽어혼빅  
 이실로갑호리라비록닉허혼호나군상이막으시면신즈되야감히거스리지못호리니잇  
 셔그스제능히편호라원컨디명공은익이싱각호야평성을그르게말나진빅이익로왈님  
 군니막으실리업고만일허치아니신죽이난위제를써의를저바리미니엇지위엄에굴  
 호며부귀에동호리오군상이신하의인륜을어저러이실진딘명제코불의에순동치아니



하도이즈며혹나라홀일허망선피국호미왕々이있나니이제공이날를티호야히징지실포  
 호고괴지망々할썩더러더이천압고조호니무레함이이릿뜻심호노이왕에몰낫솔져  
 에난천밀호야도무정지스어니와도금호야난남녀디절이명々호니다시무레치말나공  
 이실노날갓튼안히를어더무어썩쓰리오군니날노써한갓아녀조라지목호나니실노공  
 갓흔장부난두리지아니호노라지옥이지기놓하제상물욕과부々은의는부운갓호야의  
 스략락호니엇지공의종요로운녀저되리오도로허무미코블관호리라설과에안식이썩  
 々호고스괴단엄호야동정섬월이교々한듯부々사정과인간물욕과부운의던젓슴을가  
 히알지라단벽이동시켜의거절함을보고답이떠러지고이되어져분과가삼에막힐듯호  
 나그형제가장일시에항복바들위엄이업서절제기어려오니과격한성이별화갓호야일  
 장을질욕고조호더니홀연심스감동호야로를플고기리탄식호며나아안조셔스를일너  
 정된말슴이간절호고괴위숙년호야왈그티아모리놓하도이더러운전제벽의빙취바든  
 처조요아모리바리어도딘가에속한녀조라니만일핍박호족그명절이반기에푸러질거  
 시오형실청담이늑장중에있나니그티부천이정녕언약한흔인나라기간스괴잇셔비록  
 초례전상친함이잇셔도실절한녀조아니오니비록초례전상친함이잇셔도또범륜호난  
 죄업스리니만일그티거절코조할진딘니무삼고스할뜻지잇스리오례의도쓸티업고명  
 교도아지못호나니반다시죽기로세힘을핍박호야그티정심을아스며삼군장스의게그  
 티녀진줄일너그위를삭호면그티장초엇지코조호나노비록종요롭든못호나님의강산

을정후난조연니장중에나지못할거시오날를만나즐기고니일죽은들무삼한니잇스  
 리오종시원을닐우지못호면분연니하후에관을벗기며띠를글너겁척호리라하고진벽  
 이겁히다라드니하후의사미무여지고썩썩쳐지니제위급한지라하후일쌍명안을기리  
 썩진벽을보고일장을초게웃고문득진언을외며몸을떨치난듯호더니홀연축화흔득이  
 고일진닝풍이능々호야오식무지키하후의몸에두르고서괴방중에가득호니하후는보  
 지못호고다만무지키눈에아절々々호니진벽이정신니황홀호야놀나다시안젓더니하  
 후금영을흔드니계장이일시에드러오며즉각에홍광셔괴스러지고명축이휘々호니하  
 휘문득유벽교위에좌호얏스니괴운니삼엄호거날진벽이하후의제요를안앗더니다시  
 보미다만원슈의슈침을안앗스니진벽이놀나며어허업서무류히물너안조어린다시하  
 후만바라보며셔로괴식이불호한지라계장이앗가광경은보지못호얏스나양인의괴식  
 을보고의혹호더라원슈왈니홀연니병심이동호니공등은맛당이이에서야화호라계장  
 슈명호고좌우로서위호니원슈비로쇼침셔에나가말하난지라진벽이초로분을호고함  
 한티로호야겨우괴식을진정호나조연안식이조로변호호야일언도아니코다만원슈침  
 변에나와안조셔안을의지호야진슈로낫출덥혀조는듯호나심신니운우에훗터젓더라  
 이리구러명도에니르미관벽이나와문병호니원슈괴로이괴거호야본질리디단치아님  
 을티호고진벽을념호야계장을종일도록머물너쇼일호니진벽이져거등을보미식을음  
 폐호고울々블락호야언소에썩지업고블평호야호니하회심히불안호야호나이블견호

더라진박이거짓원슈의병을살피난체하야후머리도집호며손도잡아능히떠나지못하  
 니하회더욱민망함을이기지못하더라슈일이지나되진박이식음을전폐하고밤이면번  
 뇌하야한잠을닐우지못하니슈일위로화풍이소삭하야만스무려하니운무중스람갓더  
 라하회기리탄식고역시심회불안하야실음을이기지못하니이밤에제장다려왈니병으  
 로하야공등이여러날슈고하얏스니금야난물내가쉬라제장이청령하고진박이홀노물  
 나가지아니하니자못묘익현니딘박을도라보와왈원슈무슨병이게시나별단쇼회잇나  
 야그디진짓실도하고형용이환랄하야게시노삼가도리라하진박이강소왈디원슈환  
 후로편히쉬지못하니신과곤되함이오다른병이아니로다하원슈경왈연즉장군도편니  
 가도리하라엇지홀노니것히잇셔몸이곤하게하리오진박이쇼왈예셔도밤을고요이지  
 니면무삼불평함이잇스리오제박이본디원슈로더부러정이절함으로과이도심치아니  
 사이에잇셔도무방하리라하고이러나지아니사제장은저양인의교되절함을아는고로  
 그러히너기고하후는정에뜻즐알외되또한권치아니코제장이물너간후진박이한가지  
 로버기에누어말하고저하니원슈정식고니러나의관을슈렴하고씩를곳처상에좌하거  
 날진박이또한니라안즈비러왈그디는날를도르지말고한말를하야나의스심을결하라  
 니또처처할도리잇노라하회의리로키유하니진박이손을져어왈나는의리도모로고스  
 리도아지못하니공부즈친히와니르셔도폴길이업고하날이되정으므로저희셔도두려  
 음을모로니다시니르지말나그디허락을받지못하면고국에스라도라가지못하코빅골

上

이전장의뵘필지라니본디이십이넘도록한낫처럼업고일점혈육이업스미고혈한인  
 성이라그디에게원나밋쳐죽을진딘가성이멸절하고성전스후에유적이흔치지리니그  
 디만일인심이잇슬진딘측은함이업스라그디아직위제로업들너거절하니능히거살형  
 세되지못하야한갓분원하야죽을씩름이라그디반다시나의죽기를기다리나니쌀이죽  
 어그디의마음을상과케하리라하후청과에어히업셔다만웃고능히진정치못할줄알고  
 니엇지군을위하야과렵함이업스리오마난실노스세를보와맛찰할거시니의려치마르소서하  
 치말고심스를정하야체위를일치말나니스세를보와맛찰할거시니의려치마르소서하  
 니진박이하후의말를듯고탄식왈엇지하야만전홀도리잇나노만일인연을못일우면  
 천만변화를하야도불관하야라하회허초왈가히졸하다그마음이여다만식욕만품엇스  
 니초마한즈리에안지리오그디난디의를잡아비례을일이지말고신으로써날를성가  
 하면오히려도라가군명을어디뜻줄것츠런니와만일구구한스정을중히너길진디밍세  
 코그디뜻을맞치지아니하리라하더라

第十四回 都元帥數罪副元帥被棍  
 蜀中亂平定關東亂繼熾

도원슈수의하미부원슈가권장을맞고  
 蜀중난을겨우파고미관동난이디치하다

진박이소왈그디세정을모로난도다런디도관하야음양이시분하니남녀지정은인정련  
 이오식지소육은성인도면치못하시니니엇지홀노그리오니본디그디를일홈업시겹  
 박할이아니오또일사사정을참치못하야비례로간범함이아니라다만그디허락을듯고  
 즈하나니그디날노더부러스싱고락을한가지로하야이신일심니된즉누감히막으리오

사라져서나 지말고 죽으리 혼백이 한가지로도라 호러지 지말고 저하나니 허락을 드르면  
 다투고 밧세야야 그티 뜻줄 좃추은 정을 절추야 강잉호려니와 불연죽죽을 지언정그티 뜻  
 을 저희야 위력으로 겁박호려니나의 슈신도도라 보지아니호니그티는 일언에 결단호  
 야 밧세야라 하회왈 군조는 밧세를 아나니다만 명공을 속이지아니리니 녀말나성  
 천여부는 괴필치 못호려니와 그티 죽으리니 죽고그티 살면니 살이니 혼백이 혼가지로하  
 리라 왜히 하락하나니 전조의 봉우로 칭할적도 스성을 한가지로 할 뜻줄 보엿나니 군나이  
 졌나야그러나그티 비록한스 정을 뵈면니 용납지아니라 진백이 티회왈 공조도 조로를  
 티호야 밧세야게시니 우리엇지 밧세치 못호려오군의 뜻지이럴진던 군조일언나천년  
 불기오두말를 못호려니이노다만이 말노 밧세를 삼노라 하후정식 부답이러라 진백이  
 낭중으로 좃추척일이 별시와 부락한글이며 옥피를 닐며 보여왈그티 수절함이 죽기로 정  
 호고그티이 글월을 삼가 심심장지호야 속절업시 한갓슬허할다름이러니이제서로 만나  
 물일이니그는 진실노던디 간에 회스오하늘이 정호신비필이라엇지괴특고다형치아니  
 리오나의여 초정심을그티저버려거절코조호니엇지마음에 닥대할이이갓하며 무정함  
 이식호지심에서다르리오그티허망한산도에 남호야 인륜을 불관니너기나 진백은 본디  
 번화장부로그티갓치던하에엇지 못할무쌍절식속녀를 만나님의 언약을 굳게 정호고 또  
 다시 은혜를 좃추이너기며 절이 높거늘 불행함이잇서 사망지를 만나속절업시보정호고 또  
 호고 용금이 실이호니 일직무궁지 원니 밧쳤다가우연니 만나 문경지교로 허심호안지하

마스오지에 동실에 거호야 수유불이호는 교도화호야 수방고인니 되고 정약속녀라 부호  
 티의 명호함은던디 신귀알지라엇지다사다른말이잇스며 누감히 말일지잇스리오그티  
 내 혼서 빙물을 엇지한다 소저의게치제호는 제문 초를 남중에너헛더니너보라호고그  
 여노호니 하회남필에 추연조상호더니자그또한 김히 품고잇는 혼서와 옥환을 닐여왈 제  
 옥이 진시위한 정이성명도공중이너겨익수할제 혼서와 옥환을 품고 죽어너시라도 진시  
 성명을 직히려호더니 여러히를 류락호얏스되오히려보전호기를 닐목숨과갓치호얏스  
 니그티 신의를 부러아니호노라호고 진원수를 슈니진백이바다황망이보기를 다호미전  
 일을싱각호고그신위 절기를이경지호고은근한 정이더욱유출호야 심신을 정치 못호  
 니 회불열왈이왕은 무심중이라 비록천압함이잇서도 허물이적거니와 조금이후는 피  
 초유심한디 천밀함이 명교를논호고 신누를더러미니 반다시 경심게지호야 관공의 명촉  
 달야와유하혜의 형실을 효칙함이 피초그몸을앗기미라 명공은형여도 무심치말나 진백  
 왈관공은그형수를티호얏스니 공경하미당연호고유하혜는남의게집과그위급지시를  
 당호야 혼야에 일방에거호니 공경함이 군조에괴어니와나와그티는아시결발노수빙고  
 인니호반명부부라내설스전도호야 친근함이잇서도 명교에 득죄호야 료기 가상호리오  
 그티 백의 고절을 잡고조호나내그뜻줄바다극진니도심호야 피초체면을 일치말고 정도  
 로화락고조호무로구름갓은 마음과바다갓은 정을 참으니가히관공과유하혜를 홀노착  
 호다 못호리라 하회미쇼왈공이님의 유하혜를 법바드니심야에 남녀상티호미정근호야

정되 한의과니라진벽이디소왈그디늘들동판으로알거니와니또한정한주의잇노라호  
 더라이러구려늘이서막제장이문안호니괴석을감초더라일로쫓츠진벽이실흔한사람  
 이되야만스스연호고심신니여삭호야오직하후로부터슈유불이호야식음을한가지로  
 호고침척은근호야자연호정기간절호니하후그유이불열호야점스괴석이엄정호고일  
 절스정을외지아니호더라츠후난제장을체번호야당외에시위호고스스로상에올나취  
 침호니진벽은다만그닝담함을번외호야자지못호더라사오일이지난후원슈병제패쇼  
 호니비로소쇼관을일위운고틀쓰고의관을정제호니추월이안디에오르고도일이히상  
 에회요한듯일만가지티도와일턴가지광취무르녹아쇄연호니진원수난본디호방한장  
 뷔라이가튼절제미아를티호야엇지정을찰절호리오념치를불고호고나아가그섬섬세  
 료를후리쳐안고쇼왈턴하여여츠경식이있나나니양왕이되야무산고디에숨을비러션  
 아를만난즉가늑쳐음봉우로치고호미사랑호도다이러듯호야실흔한사람이되어만스  
 부운갓고침식을맛솔보지못호되하후로더부러수유불이호고속식을갓치호미즈연그  
 유한정을금억지못호니하후가장불열호야일일은정식척왈명공의헝스맛참너곳치지  
 아닛코동너여츠할진턴너또한언약을변할뿐아니라피츠후로정의와교도를찾쳐제군  
 졸의비소함을취치아니라호고괴식이닝닝호니북풍한설에미화닝담호고벽던추월  
 이상광을떠음갓호니사람으로하야금홍중이폐석호고골절이송연케호는지라그러나  
 진벽의하후를흠모호는마음이일신에박혀능히억제호기어려온지라이에미소함을마

지아니코오직것호르스레호더라하회패소함을군중이디락호는중진벽이더욱패할호  
 야이에큰잔치를베풀시쥬륙진찬과옥반가호로공비이츠려하후를청호야차복함을하  
 레할석진벽이천히잔을잡아헌하호니원수칭스호고제장이츠레로칭하호니잇셔진원  
 수리산갓은중정을품엇스나군법의장령이지엄한지라홀노군법을어기지못호야개얼  
 이이러나옥비를쌍수로बाट드러원수에교의아리나아갈시화풍경운의수려한안화더욱  
 빛나고동랑한신척시롭더라긴키를낮초와무를홀썩러쌍수로옥비를헌호며추수정광  
 을홀여원수를보며그욱합한호니원수황룡수에쇄즈갑을써넙고술금일월관을써스니  
 금인옥모는황금디의깁장호고우선과옥홀을잡아놓히좌호스니괴상은추던벽일갓  
 고룡봉자질이광치찬란호니일신에서괴회회호야일석이무광호니일우괴록지못할  
 너라부원수의진작함을보미그뜻즐알고심허우허너겨옥안성모에히미한우음을써여  
 짐짓완완니바다단순에접호고도로두니진벽이그거만함을일변미소호고잔을바다스  
 스로마시더라제장이이에헌작호니원수일일응접호고진벽은종일진음을호야디취호니  
 라이에풍악을제주호니웅장성식한기네청가묘무로가성이열열호야구소에섯드니제  
 장이적년격리로무료이지내다가아황분벽이교티를먹음엇슴을보미정신니탕호고마  
 음이황홀호야오직진원수여츠기물에뜻즐두리오비록월전항아껏히잇스나도라불의  
 스업스니하원수또저의취중광심을두려스스로상락을당기하에읍기고제장을명호야  
 이에서한가지로홀속게호니제장이불승황공호야호나참기와일야유회함을즐겨승순

하더라종야도록풍악을갓초와군중이진환하니비만니낭조하고주비를날려진취하니  
 가히승전한찬치물가지러라이럿듯종일종야를진취하니원슈와허다장졸이작취미성  
 앙고또연음향앗난고로져마다유괴또한미파향취기를이기지못하니원수령향파  
 연향고스스로도라갈식진벽을먼저보내고자고는군중에도라와군정을살피니삼군이  
 즐겨셔로하례왈우리원수나으스다시소졸를브르시니엇지즐겁지아니리오향야환성  
 이여류향더라셔양에원수삼군을점고향야안둔향고별관에도라오니진벽이술이취향  
 야구러져거날그체면에불가함을미안니너기고또저의취중광심을두려스스로상탁  
 을장티하에옴기고제장을명향야진벽과한가지로자게향고홀노축을밝혀의관을정어  
 향고단정이안조병셔를이으니성음이쇄락향야옥을마아는듯셔의방중에들녘스니  
 장밧게셔조든제장이정신이황홀향야잠잘졸이젓더라잇셔진벽이취괴잠간셔미셀이  
 하후에잇는곳을살피보니다만제장이누어조고포진상탁은다옴겨가고원수의옥성만  
 들이거날조셔이보니축영이장밧게도요향미놀나밧비이러나목이갈향되사람을브르  
 지아넛코포진을헛치고병풍을밀고드러가물을츠조마시고이욕히안조바라보니하  
 원수홀노축하에단좌향야제갈량의병셔를넘으니무인심야에독셔향는거동이신신괴  
 이향야너시취향고눈이아질향니유경션관이황정경을의오는듯요지연이아나로되션  
 관이좌한듯한지라취한정신이상쾌향야어린다시바라보되제종시도라보지아니거날  
 이의나아가그검티를잡아웃고왈그티나의취한거슬보호치아니코조향야에올마온

다가히부부지의아니오셔로미들비아니로다님의밤이갑거늘중병지여에홀노조지아  
 니코독셔향나뇨그티비록던병만마를두리지아니향는위엄이나이진제벽은술허너기  
 니또한두렵도다니당당이도심향야젓혀셔조리니너모의심말고편이쉬미도호나오늘  
 감하나의하작을바드며빅안모시향고형지거만향니너과연혈괴지분을참지못향야죽  
 각에그티근본을이르고그거만한괴운을씩고셔부되십분집작향나니그티성심도내  
 게조준치말나향취어이업셔미쇼향더라이욕고좌를못쳐정식취왈피츠사실에서는관  
 계치아니려이와아직은군법이지엄향니그티나의수하에잇거늘문득중인을취치아니  
 코체면니중거늘연상에서술을과취향고이갓치광망한말를받향니님에체면니글넛고  
 이갓치실체향니그죄가히공에머리를보전치못할거시로되사실이기로죽가를아니꺼  
 니와술를취향고누어늘를맛지아닌죄는내일다스리려향나니그티는한치말나그티내  
 벼살를삭향겅노라향나내비록너조나황상이봉작향신비오션참후계를밧조와련하군  
 병을충녕향나련조도오히려내일을아지못혈비요가빅야이피치못향려든하물며그티  
 감히내수하에잇셔내벼살을삭향리오만일련조게주향야삭직향는도제나리면내당당  
 이인을전향고물너가련니와불연죽아모리너존졸아라도침범할비업고내게참마검이  
 잇나니공은도심향야군법을범치말나진벽이티쇼왈그티인금을저히저히내머리를  
 버히라그티늘를죽이면능히청년과부되기를면향며또엇던스람이될고그티아모리티  
 원수를자중향나맛참이부원수의안히라벼살도중권이와소던인들경향라나노그티갓

든디장을 두리지아닛노라 하휘녕소왈내한몸이사절을 위하야던하군병을 문허바리지 못하나니 군법은 사정이 업는지라 그디군법을 범하면 내당당이 법을 범하리니 후에 내죽 어죄를 속할만 정군령은 후이 처 못하리라 공은 조심하야 누웃지 말나 내님의 황조를 밧조 외병부를 초고던하군병을 호령하디엇지 사정을 도라보리오 이군중에서는 부부사정쓰 지 못하리라 말삼이 준절하니 진벽이 변식으로 왈내비록 군법을 범호들그디늘를 버히고엇 덜고그장수인은그리중하교 소련은경하야그디스스로시부죄인이되고조하는다원수 왈인쉬귀함이아니라 먼저범호죄을다스리고중원의도라가벼살를드린후반다시죽어 공의게스죄하리니내남군의명을바다사정을도라보리오진벽이하릴업셔웃고왈혈마 엇지하리오늘를죽이고한번과부됨을면치못하리니만일스스로죽거던늘과한가지로 못치라 녀시나떠나지아나리라 하휘도로허웃다라이러우려담이올고동방이열이거늘 제장이문안하니셔로괴식을감초더라이의하원수갑주를갓초오고장전에나와안조진 벽을불너어제술를과취하교실례함을수죄한후그군관당함을디신하야결곤이십을밍 타하야닛치고군법을셔로이엄히하니군중이숙연하더라진벽이비록로하나져의괴 식이엄속하야일분사정이업스니도로허기탄하더라추후는하후진벽과중용이디함이 업더라디군니익주를떠나반스하니진벽이수리에외전송하고벽성들리떠나물슬허하 니그위덕이여차하더라헛하야수양산에이르러는홀련북으로쫓차황스이르려도셔를 견하니원슈진문을열고마조향안을비설하교도셔를넘으니이다른일리아니라관중절

도스벽류이황포장사출전함을라본도군스를일우허동방렬음을철시던하의포고하되 흥언피설노던조를회방하야티조황데모수함을일갓고괴병장구하야장초황성이위급 하얏스니급히군스를움거문죄하라하셔정디공을포장하스전지에근노함을위로 하시니련의위곡하신지라원슈련은을망극하야사를점디하교표문을닷가도라보닐후 탄식왈사방의병화봉괴하니어내시절에던하평안하리오이에대병을두루허관등을향 하니삼군장스공을일워승전곡을올여고국에도라가부모쳐조를반기물바랏다가슈천 리밧게다시강적을만나니실망하나다만보고바라노바원슈의신기위덕이라용병이귀 신갓하스스졸이원슈바라물적조조모바람갓더라차시진벽이하후근본을안후는일정 심이셀이도라가군명을어더동방가연을일위동고지락을일우물죄오미일일여삼츄러 니조물이과시하야홀련니 동풍차미이러나호스를희지으니가괴지속이업고전장길 흥이덩기어려온지라심사아연하야면식이여호할을쳐닷지못하니중인은다고히이너 기고하후는그뜻즐알고일변위이너거투목속시하야미미함쇼하더라이늘부터진벽 이올을불락하야만첩슈운이광미에어리여침식이불안하니운무중스람갓튼저라엇지 능이전진의강적과승부를닷장괴잇스리오제장왈부원수는근내실흔지인가트니가 장고이도다저리하고봉적하미능이승벽를결루리오하원수미쇼왈공이공슈가괴를죄 오다가이제또전장을당하야도라갈과약이머릿슴을락담하미남모로논시름이잇셔그 러하도다제장이쇼이대왈하교맛당하니이다하니진벽이어이업셔봉목을홀기며하후

를보와우어왈소장은공유와혼인정한줄도이졌다니이말삼에비로소쳐다랏나이다근  
내선상에미양이잇셔즈연식지는갑하고괴운니업슴으로모든기소를밧기이와원수는  
세익으로더부러저괴상합하거늘엇지도로혀도롱하나뇨하후잠소부답이러라이욱고  
다시일오디강적을남하야각각괴운을발하야성공함을도모하라제장이다수명하거늘  
진빅은몸을느히여고눈섭을썩고이괴월세빅은반심니푸러져수습기어려오니청금중  
에빅인을잡아갈아리경흔니될가하나이다하휘원간진빅이자괴를말미암아실성하야  
거짓당황하고장괴죄잔하야능히봉적지못할줄알고급히근심하더라말를듯고문득  
왈장년에무삼병이잇스리오이느피금을내여탁스함이로다하고차후는진빅을어려운  
소임을맛거쥬야스후케하니진빅이불얼하야병들물고한대원수발연변석고말들아  
니하니진빅이잠간불안하야지삼스죄하고물너나다이를대병이수양산을지나더니하  
후이제에묘를보고고절을감동하야이에천신한두어장수를다리고산상에올나고적을  
구경흔식진빅이또한조촉더라사당이되락하고묘소황양흔지라하후추연하야이에스  
스로제문지어제전향축을갓초와묘전에나가제혈석북향지비후독축하니진빅이것  
히잇다가그축문스의를듯고문득변석고하후를도라보외지삼관형찰석하더라하후다  
시붓슬잡아묘문에서를지어쓰미그뜻지다이제를청송하고스모하야스스로제상을사  
절홀뜻지잇스니붓슬던지고옥안니참연하야허거늘호위장군도익현니진전문왈원수  
마야흐로티평성대를만나치국평련하하고힝왕도왕미그시절이어늘무슴일노져갓흔

시를지어아스한고절을사모하야제상을바리고즈왕시나뇨원수추연답왈이제의고절  
은만고에하나이라평성흙모하느비러니이제그묘하를보니그고적이엇지갑창치아니  
리오힝왕도치던하를니엇지바라리오부득이흥진을밧힐뜻진즉괴산에숨으며영수  
에귀를씻기를원하나니원웅디장이엇지나의본심이리오무왕의덕으로도이포역포라  
하얏스니허물며우리는만느시절이엇더하뇨진실노강기하느다진빅은그내력을아느  
고로그뜻이제상을바리고갈거동이라크게놀나고의심하야사이를타가만나혈문하되  
임의늘과언약을두고엇지수양산취미를싱각하나뇨연즉반복소인이리라그디쥬하는  
소견을듯고저하노라하휘단왈나의지취는그러하나과연명공게아여느쳐한형세를맛  
났스미즈연강기함을참지못하노라진빅이초후장신장의하야더욱심식번민하더라  
진빅이또흔붓슬드러하후의시를추운하미작체번화하고의사옹장하니맛참너부귀홀  
괴상이러라원수본관을명하야이제의사당을중수케하리라원수디군을휘동하야쥬  
로나아갈시호호탕탕하야괴치금극이이빅리를가리오고위엄이숙연하야도로관광지  
청션하더라진빅이비록길에오르나반다시원수것출쳐나지아니코밤에는한장막에드  
러숙식을한가지로하니하후심리에우이니기더라이에디군을휘동홀시일일은원수진  
빅을명하야군마양초를밧타수응하야후군니되여조초오라한디진빅이만심불열하야  
변석무언이러라이욱고디왈양초는님의맛든장석잇고더욱부원수는디원수버금이러  
엇지제장의소임을맛기시나이잇고연즉군법이차례업슬거시오허물며몸에병이실여

겨우군중에 좃츠나 능이 밧그로큰소임을 못하리니 원수는 상찰하소서 원수 닝소 왈  
 몸이 병이 잇슬진디 엇지 능히 군중금극에 싸움을 당하리오 맛당이 본관에 머무러 병이 낫  
 거던 밧 좃츠오라 진벽왈 디 단치 아이니 엇지 떠러져 잇스리오 맛당이 한가지로 나아가 원  
 수와 갓치 하리니 엇지 참아 제벽을 바리고 가랴 하시나뇨 잇셔하원수 진벽을 죄주어 벌이  
 다 불청하고 거역하니 군법을 경이 너기미라 전장에 양최중겨늘수 운함이 무어시어려오  
 리오그대늘과 교도 절하니 체면이나 다르거늘 간스한 말노를 롱락고져나뇨 국법은 스  
 정이 업스니 이번은 사치 못하리라 내님의 선찰후계는 칼이 잇스니 군중에 제장과 주현  
 방벽에 계성살지 권내내게 잇나니 뒤잡히 군령을 어그리오 옥안에 로기가 득하니 진벽이  
 같오대부원수 군법을 범함이 업고 원수 비록 성살지 권을 가져계시나 무죄한 대장을 가비  
 야이 죽이지 못하리니 왕스에 위엄이라 도일국이 가살이라 하여 죽이나니 제벽이 불행  
 하야 원수에 막히 되엿스나 군명을 한가지로 밧즈와겨늘 원수 무단나 버히시려하시니 어  
 대법이 가하리잇고 원컨디 셤이 제벽을 버혀마음을 쾌하소서 언파에 수려한 안모에 로  
 괴어리고 쌍성봉목이 하일에 두리움이 잇스니 하휘심중에 실소하고 왈 진벽이 체면을 일  
 허버살를 자랑하고 법을 모로니 잡아나리오라 하니 잠잠미거스리고 쌍안니 열속하니 죄  
 우제장이 불승전를 하야 불감양시하고 한출첩벽려라 문득 군중 북이 우는곳에 진벽을 잡  
 아나리오라 하니 진벽이 대로하야 롱미를 거스리고 봉안을 속정하야 무스를 양구예시에

요동함이 업스니 양목금광이 희빛출가리오 고평회황々찬는하니 무사함을 홀이고 감  
 히나 아드지 못하니 진벽이 하휘짐짓거절코져하미겨동하러이러듯구박함을 알오대군  
 법이 지엄한지라 마지 못하야 면관희의대하고 계하에나려돈수 청죄하고 버힐을 청하대  
 문득 좌우제장이 일시에 석러이결왈 부원수 근간병이 잇슴은 중이니 보는비라 엇지 탁스  
 리잇고 허물며 범법한 죄아니오 원수와 교도들미더장령을 불봉하온 죄잇스나 북망원수  
 는 군명을 한지로 밧즈와만 리 밧게 동행하사 대공을 일헛스니 적은 죄를 스하쇼셔어시에  
 삼군장졸이 일시에 소리질니 왈 만일 부원수를 스치아니시면 군심이 다 변하리이다 원리  
 진벽이 엄중하니 관인 후덕하야 인심을 만이 어덜더라 하휘문득 군졸의이긋음을 보고은  
 근니 희왈 진벽이 타일국이 중임을 당하나 사졸의 인심을 봄이 잇스니 근심이 업도다이의  
 하령왈 진원수역명지 죄를 면치 못할거시로대본대본병이 잇셔탁스아니면 그공을 도라  
 보외극를 스하거니와 벌은 업지 못하리라 하고드대여 작하야 군관에 처부하고 인을  
 아서 선봉척유희로 교대하니 진벽이 비록대로하나 군법이 중한지라 허릴 업셔사죄하나  
 안모벽설갓더라 하휘석장군을 불니 분부하되 진벽이 평일거오하야 장령을 경이 너기니  
 내이러 무로적은 죄를 일위그기운을 절제하고 분을 도와 봉척하미공을 일우고즈 잠간  
 군관의나리와 욱을 보나니 장군은 엄히 잡죄여즈유케하라 석장군과 제장이 본대 진벽이  
 하원수로 교도 절하고 정이 후함으로 공경함을 다하지 못하니 제장이 미안니 너기더라 원  
 리진백은 부원수의 웃듬군관을 삼앗는지라 이후로 부원수 영체를 각각하고 제장의 출립



진퇴를 령밧게나지아니하야 군법을 더욱 엄히 하야 각각 처소를 령업시움기지 못하게 하  
 니 각진군관나 감히대원수장대에 오르지 못하는지라 석유희진백을 정하야 가장 공경하  
 니 이는 괴상 위인을 항복할이러라 명일대군을 휘동할시 원수 삼군에 전령하야 묘시 초의  
 밥먹고 묘시 말에 점고 하되 하나히 떠러지면 구를 노다스리라 하얏더라 원수의 비장 하나  
 허 밤에 술을 먹고 자다가 늦게야 이르점고 한 후에 이르니 원수로 하얏나려 그 머리를  
 버혀 삼군에 호령하니 석유희로 하야 금그 신체를 영장하고 그 옷을 초흔 하야 제 집을 차  
 쥬게 하니 이는 은위병행할이러라 삼군이 다 두리고 송덕하더라 진백이 탄왈이사람이사  
 쥬이 업스니 내엇지 사스를 밋어리 만하리오 하더라 이윽고 대군이 발하미대원수 록만 정  
 괴로 롱 봉괴 하에 빗겨 행하니 진퇴던상 선자요 신괴 상이러라 썩혀는 정신니 군중에  
 도요하니 처운 중용갓고 곤산 괴범갓 하야 갑쥬선 명하고 위 의 엄숙 하야 황나 괴 대외 백모  
 황월이 희를 갈리와 제장이 차례로 비립 하야 행하는 거동이 형운 류수갓 하야 대외 정제 하  
 고 위엄은 쥬야 부에 풍취 오용 병이 신출 괴물하고 도화 무궁하니 진백은 의이 아난 비나 석  
 로이 탄복 할을 마지안더라 하 후진 백을 닛 친 후로 하로 도잠자미 업서 미양 병서 만되 하야  
 달야 하되 또 괴운니 곤 꺾 할이 업더라 의 관을 정제 하고 괴운을 썩 하게 하야 장되 의 홀노  
 안 조장 밧군스를 상괘 게 하더라 관동 지경에 이르러는 디 병을 므라 업습 하니 령읍이 다 망  
 풍 귀순 하야 왕스를 맛더라 진 백이 일일은 원슈 디 하에 이르러 계슈 부복 하야 성공 속죄 함  
 을 빈 디 원슈 정석 부답 하 고 집 짓 피 군 홀 디를 보니 괴 연 광능을 처이 고 지 못하거 날 원슈

더욱 척하고 이에 성무를 보노니 여괴 묘비 계를 가랏 처 광능을 파 하얏다 하니 하회 하야 오  
 본서 관에서 지라와 조선 고 리 유명 호소 설에 취미가 진진 할 것을 갈희 여오 십여 종을 근간  
 하 겿스오니 소설이 독 하시는 동포 자미는 비 전의 고 하 심을 바라옵 니 다 신간 하는 소설 명  
 목이라, 팔장스 전, 황장군 전, 금향 정 괴, 모란 정 괴, 일봉 산 괴, 효녀 목 난 전, 룡문 장군  
 전, 금강 취루 정, 옥 름 괴 몽, 김 씨 효행 록 최 씨 숙 열 괴, 이외에 연 속 출 판 함

하 진 양 문 록 상 권 종

大正四年三月五日 印刷  
大正四年三月十日 發行

河陳兩門錄上卷

定價金五拾錢

京城府仁寺洞三十九番地

著作兼  
發行者  
朴健會

京城府苑洞二百六番地

印刷者  
鄭敬德

京城府苑洞二百六番地

印刷所  
朝鮮福音印刷所

總發行所

京城南門外蓬萊町一丁目  
振替口座京城二六九三番

東美書市

分賣所  
京鄉各書舖



不許  
複製

本書市の爲先出版發行호와學界의 提供호음는冊子는如左호음고  
 此外各種書籍도多數具備호와大割引發賣호오니不拘多少호시고注文호

目録 教科及參考書

初等小學	一帙	六冊	定價	一圓五錢	古代小說하진양문록	一帙	三冊	一圓五十錢
學徒指南	一冊	全		二十五錢	설인기전	一冊	一冊	五十錢
普通文字集	一冊	全		二十五錢	장리공실기	一冊	一冊	三十錢
伯林巴里論 <small>(德法京名)</small>	一冊	全		三十錢	소덕성전	一冊	一冊	三十錢
懸吐謝氏南征記	一冊	全		三十五錢	류충렬전	一冊	一冊	二十五錢
時體草簡帖	一帙	三冊		一圓六十五錢	금목년	一冊	一冊	二十五錢
漢鮮文新玉篇	一冊	全		一圓二十錢	부흥린	一冊	一冊	三十錢
新纂尺牘	一冊	全		七十錢	금강취류	一冊	一冊	三十錢
集註小學	一帙	全		一圓	봉황금	一冊	一冊	二十五錢
新版七書	一帙	八冊		五圓九十錢	미민도	一冊	一冊	二十五錢
언문편지법	一冊	全		二十五錢	刪修春香傳	一冊	一冊	二十五錢
精選日語獨學	一冊	全		四十錢	송죽	一冊	一冊	二十五錢
附音註解尺牘	一冊	全		三十錢	귀의성	一冊	一冊	七十錢
					연광녕	一冊	一冊	二十五錢

京城南大門外蓬萊町一丁目(元紫岩)  
 振替口座京城二六九三番

東美書市 告白

以上小説은聚味津津호者를擇호야出版이온바讀  
 者의興味를補호